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판별 연구: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The role of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BK21 박사후연구원 이옥경***
박사과정 김지현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Yi, Soon-Hyung
BK21 Post Doctor : Lee, Ok-Kyung
Doctoral Course : Kim, Ji-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riminate important variables among general self-efficacy, peer attachment,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that could predict internalizing problems(anxiety, depression)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The participants were 101 children aged from 10 to 13.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and discriminant function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a) the discriminant function derived from 3 variables was effective in classifying high, moderate, and low group of children's anxiety and depression, (b) parent-child communication plays a key role in predicting anxiety and general self-efficacy plays a key role in predicting depression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c) but peer attach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only to predict depression. This means that anxiety and depression of Korean children of divorce result from different kind of interactions among children's important contexts.

△주요어(Key Words) : 이혼(divorce), 우울(depression), 불안(anxiety),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또래애착(peer attachment), 부모자녀 의사소통(parent-child communication)

1. 서론

통계청(1990-2003)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당해연도 총 이혼 건수를 당해연도 총 인구로 나누어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계산한 조이혼율은

1990년에 1.1이었으나 1995년에는 1.5, 2002년에는 3.0, 2003년에는 3.5에 이르렀다. 이혼율의 증가는 이혼가정 자녀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2002년도에 한 해 동안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한 부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는데, 이 중 자녀가 1명인 가정이 30%, 2명인 가정이 35%, 3명인 가정이 4.7%였다. 이 수치를 적용해 볼 때 2002년도 한 해에 약 16만 명이 넘는 미성년 자녀들이 새롭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전수정, 2003). 이혼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주 저 자 : 이순형 (E-mail : ysh@snu.ac.kr)

*** 교신저자 : 이옥경 (E-mail : invincible50@yahoo.co.kr)

부모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문제로는 우울과 불안을 들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불안이 양부모가정 아동과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들(김남숙, 1993; 홍순혜, 2004)도 있으나 다수의 연구들에서 이혼가정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우울과 불안의 문제를 더 크게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Emery, 1991; Wallerstein & Kelly, 1980; Wolchik, Sandler & Doyler, 2002).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우울, 갈망, 슬픔, 분노, 소외감, 무력감을 느끼며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Wallerstein & Kelly, 1980). 교사들은 이혼가정 자녀들이 정서적인 분출과 침울한 경향이 있고, 분노와 절망감을 주위에 방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오은순, 2002). 이혼가정의 많은 아동이 임상적으로 우울하며 부모를 상실함으로써 갖게 되는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과 관련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Benedek & Benedek, 1979). 이혼가정 아동들의 우울 정도를 양부모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혼가정의 아동들은 양부모가정의 아동들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동승자, 2000; 서지영, 2002; 이해승·이순형, 2003; Peterson & Zill, 1986). 이해승과 이순형(2003)의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들의 우울정서, 흥미상실, 자기 비하 정도 등 우울의 전 영역에서 양부모가정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기 비하 경향이 현저하게 높았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김성태, 1988; 동승자, 2000; 주소희, 1991; Chandler, 1985). 동일시 대상의 상실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의 문제, 역할모방의 장애 등은 여아의 경우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 같은 과잉통제 행동을 남아의 경우 과소통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태, 1988).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은 아동의 삶의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스트레스원으로서, 한 부모의 상실이라는 가족구조 자체에 의해 모든 아동이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특성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아동을 둘러싼 심리사회적 환경 요인과 아동자신의 개인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아동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부모와 또래환경이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환경이다.

아동의 개인적 요인의 하나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우울의 원인이 지각된 혹은 실제적인 통제감의 상실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오복자, 2000)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지영, 2002). 자기효능감은 개인 탄력성(resilience)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고 삶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고난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Turner, Norman & Zunz, 1995). 또한 특별하고 어려운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나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안정적인 애착과 성공적인 성취에 의해 고취될 수 있는 것이다(Masten & Coatsworth,

1988).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 변화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73).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Cowen, Wyman, Work & Parker, 1990).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혼자녀의 심리적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기효능감을 포함하여 자신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인 이혼가정 아동은 그렇지 못한 이혼가정 아동에 비해 내면적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Cowen et al., 1990; 서지영, 2002). Werner와 Smith(1992)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아동기 스트레스와 긍정적 성과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성인기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과 같은 삶의 부정적 사건은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할 수 있지만,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Seligman, 1989).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들 중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변수들은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Jacobson, Fasman과 Dimascio(1975)는 자녀의 우울에 있어서 부모의 죽음이나 격리와 같은 가족으로부터의 외형적 박탈보다는 정서적 유지관계의 결여 및 부재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우울증 환자들의 아동기를 조사한 결과, 아동기 양육과정에 있어서 정서적 유지관계의 손실 혹은 박탈과 우울증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에서도 이들의 부모가 일반인들의 부모에 비해 거부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되었다(Bruch & Heimberg, 1994).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아의 우울에는 애정 요인이 불안에는 과잉간섭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고, 여아는 우울, 불안 모두에서 애정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문경주·오경자, 2002).

불안은 가정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동이 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의미 있는 사람들로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할 때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김영교, 1995). 또한 불안은 대개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고(전제순, 1998),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무시되었던 경험은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김지영, 1997).

부모의 양육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거부와 통제가 자녀의 우울, 불안에 모두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혼 후 양육부모들은 부모역할과 가사책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지지해주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자녀 양육 기술의 부족을 느끼며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을 훈육하는데 있어서 비일관적이고, 더 거부적이며 덜 애정적인 양육을 하는 경향이 크고(Hetherington, Cox & Cox, 1982), 이는 아동의 정서적 문

제와 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Peterson & Zill, 1986). Wolchik, Wilcox, Tein과 Sandler(2000)에 의하면, 양육부모의 낮은 수용과 아동의 심리적 적응(내면화, 외현화 문제)은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온화한 양육태도는 남녀아동 모두에게 이혼 후 경험하는 유기불안을 감소시켜 부모이혼으로 아동들이 경험하는 이혼스트레스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소희, 2004; Kurdek & Berg, 1987; Wolchik et al., 2000).

부모의 애정이나 거부적 태도는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된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이다(정유미·김득성, 1998).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효율적인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정에서는 가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부모-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생성하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내면화될 때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이혼이라는 위기적 사건을 경험한 아동에게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적응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가족의 응집력이 약하거나 가족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아동기 우울증과 관련이 있었다(임영식, 1997).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희·최태산·서미정, 2000). 정현숙(1992)의 연구에서는 이혼 후 가족의 구조적 특징이나 아동 개인적, 사회적 자원보다도 양육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가 자기비하를 포함하는 자녀들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폐쇄적인 대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의사소통은 아동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양육부모의 애정이나 통제 등의 양육태도(행동)와의 관계를 연구했을 뿐이며 이러한 양육이 제공되는 과정인 양육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한편, 학령기 아동은 가족과 더불어 지내는 시간만큼 또래관계도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에게 또래의 영향을 크게 증가한다. 특히 아동기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유리되어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Ainsworth, 1989). Ainsworth(1989)는 이러한 변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상대적으로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둘째, 또래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또래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신뢰, 또래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또래애착의 하

위차원으로 삼고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아동들은 우울, 불안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래관계의 한 지표인 또래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김윤경·이옥경, 2001), 친구관계가 아동의 정서적 복지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Parker & Asher, 1993)라는 보고도 있다.

부모의 이혼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은 부모가 이혼할 때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아동들에게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는 것이 대단히 두렵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가족형태의 아동들과 관계를 가지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고립되거나 친밀한 대인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Wallerstein & Kelly, 1980).

연구자들은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이혼 후 아동의 적응과 관계있다고 하였다(Cowen et al., 1990; Kurdek & Berg, 1987; Werner & Smith, 1982). 이혼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이혼하지 않은 가정 아동·청소년과 차이가 있어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 이혼 가정의 자녀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낮으며(권영미, 2000; 지은선, 2002),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도 부정적으로(박종배, 1987; 주소희, 1991) 나타났다. Jaffe(1997)는 아동이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의 처지가 또래와 다르다고 느낌으로써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김옥(2000)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 5-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애착을 연구한 결과, 또래와 상호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는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없으나, 또래관계에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또래로부터의 지지를 차단함으로써 이혼가정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원만한 또래관계는 아동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으나, 이혼가정의 아동들의 또래애착이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령기 아동들은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압력과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또래관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인지적으로는 미숙하고 심리와 정서는 불안정하다. 이혼가정 아동이 아니더라도 학령기 아동은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이영미·민하영, 2004). 이러한 발달단계상의 어려움에 덧붙여 이혼가정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실망과 분노, 자기 존중감의 감소, 타인에 대해 냉소나 적대적 조망, 이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아동기는 여러 가지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습득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우울, 불안은 학업성취, 사회적 유능감, 대인관

계 형성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의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은정·오경자, 1992).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되지만, 어떤 아동들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적응의 문제를 보이게 된다. 이는 부모의 이혼이 필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에게는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하려는 힘이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이해하는 것이다. 건강하게 적응하려는 아동의 특성인 보호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한 맥락에서 파악하여 이혼가정 아동들의 적응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혼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특정한 몇몇 요인만으로는 부모 이혼을 경험한 아동들의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에 기반하여 수립된 개입전략을 효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가지고 이혼가정 아동들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김승경, 2004; 오은순, 1998; 주소희, 2004). 아동의 개인적 요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외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후에 보다 아동의 적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개입전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을 한두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하던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개인적 요인, 또래관계 요인, 가족관계 요인과 같은 개인과 환경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임상적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과 불안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학령기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요인인 또래애착, 가족관계 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설정하고, 이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함으로써 이혼 가정 학령기 아동의 우울과 불안 성향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을 돕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집단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어느 정도 판별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떠한가?

둘째,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어느 정도 판별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10개교에서 4학년 1,620명, 6학년 1,70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했다. Wallerstein과 Kelly(1980)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이혼 사실에 대한 인지적 이해는 가능하나 대처 기술이 여전히 미약하여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혼 경험과 발달하는 정체감을 통합하는 것이 보다 어려운 과업이 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가능해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중 아동기 중기의 4학년 아동과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낙인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조사대상 학급의 전수를 대상으로 일련번호가 기입된 질문지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표집된 이혼가정 아동 4학년 48명, 6학년 65명의 총 113명 중 아동용 질문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거나 교사용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사례,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도 동거하지 않는 사례를 제외한 총 101부의 질문지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3,324명 중 이혼가정 아동 113명이 표집된 것은 부모의 이혼여부를 본인이 밝히지 않고 교사도 확인해 주지 못하는 불확실한 아동의 자료를 모두 배제했고, 이혼가정 아동으로 확인되었으나 설문지를 부실기재한 경우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4학년은 44명, 6학년은 57명이었으며, 학년에 따라 예측 및 준거변수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는 남아 47명(44.3%), 여아 54명(55.7%)으로 여아가 많았고¹⁾, 조사대상자의 양육부모의 성별은 아버지가 51명(53.0%), 어머니가 50명(47.0%)으로 비슷하였다. 양육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9명(18.8%), 고졸이 44명(43.6%), 대학졸업이상이 38명(37.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양육부모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최종학력을 가졌다. 양육부모의 직업은 무직이 2(1.9%), 단순노동이 15명(14.8%)이었고, 사무기술직 29명(29.1%), 자영업 38명(37.2%), 관리직 10명(9.9%), 전문직 8명(7.9%) 등이었다. 이혼가정 아동이 속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하류층 5명(5.2%), 중하류층 31명(30.4%), 중류층 55명(53.4%), 중상류층 10명(10.6%)이었고 상류층에 속하는 아동은 없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초등학교 아동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지의 문항을 아동이 잘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예측 및 준거변수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학년, 성별, 동거하는 가족원과 부모의 결혼지위²⁾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불안에 관한 질문지는 아동이 작성했다. 부모의 직업 및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결혼지위, 양육부모의 성별에 관한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작성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1) 자기효능감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척도(Schwarzer, 1997)의 한국어 버전을 조사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총 10문항 중 5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했다.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개인 능력에 대한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감각으로 정의된다. 척도의 반응양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5~25점이다. 이 척도는 1981년 Jerusalem과 Schwarzer에 의해 독일어 버전이 개발된 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한국어 버전까지 개발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가 국가별로 Cronbach α =.75~.90으로 나타난 신뢰로운 척도이다(Schwarzer, 1997). 이 연구에서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6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 또래애착

이혼가정 아동의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Arnsden & Greenberg, 1987)에서 또래애착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IPPA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정서적/인지적 차원을 측정하는데, 특히 친구들이 심리적 안전감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 척도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믿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상호 신뢰', 친구들과 자신의 정서와 생각에 대해 주고받는 행위의 '의사소통', 친구들로부터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심리상태의 '소외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문항의 원 척도에서 11문항을 추출 후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문항 반응양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1~55점의 총점 범위를 가진다. 개발 당시 또래에 대한 IPPA의 반복측정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서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도 Cronbach α =.79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이혼가정 아동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알아보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의 자녀용을 초등

학교 4, 6학년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PACI는 개방형 의사소통 척도와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의 2개의 하위차원이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방성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문제성은 그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제한되는 부정적인 면을 의미한다. 개방형 척도의 점수와 역채점한 문제형 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총 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에서 6문항, 문제형에서 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했으며, 5점 리커트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총 11~55점의 총점 범위를 가진다. 이혼가정의 특성상 부모의 성별과 관계성이 양육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구성했다. 개발 당시 PACI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8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말한다. 비양육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비양육부모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분석하지 않았다.

4) 우울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ovacs(1981)의 CDI(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수정·보완하여, 총 31문항 중 11문항으로 구성했다. 아동용 우울척도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8세~17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원 척도의 3점 리커트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했으며, 총점의 범위는 11~55점이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행동장애, 흥미상실, 자기비하, 생리적 증상의 5가지 하위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행동장애와 생리적 증상의 하위범주를 생략했다. 개발 당시 CDI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수정한 척도의 신뢰도도 Cronbach α =.80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5) 불안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와 Richmond(1978)의 RCMAS(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의 Anxiety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28문항 중 6문항으로 구성했다. RCMAS는 6~19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척도의 반응양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총점의 범위는 6~30점이다. 개발 당시 척도의 신뢰도는 .85로 신뢰롭게 나타났고,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도 Cronbach α =.78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4학년 50학급과 6학년 50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각 학급에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조사자 1인이 참

2) 아동에게 한 집에서 동거하는 가족원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함께 동거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질문하여 부모결혼지위 및 양육부모의 성별을 조사했다.

석하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자들은 1시간 동안 질문지의 종류 및 구성, 작성 예상 소요 시간, 배부 및 수거 요령, 아동 및 교사를 대하는 태도와 기타 주의 사항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조사자는 아동이 착석한 순서대로 일련번호가 미리 부여된 아동용 질문지를 배부했으며, 담임교사에게 각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부모결혼지위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이혼가정 아동에 대한 교사용 질문지를 교사에게 전달한 후 수거되면 조사가 완료되었다.

4. 자료의 분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Window SPSS 10.0을 사용했다. 각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알아보고, 평균, 표준편차, 빈도, Pearson의 상관관계, 판별분석을 실시했다.

III. 연구결과

1.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한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집단 판별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집단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어느 정도 판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했다.

판별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연구대상 이혼가정 아동 101명과 일반가정 아동을 포함한 전체 3,169명 아동의 우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우울 점수의 평균은 22.44점, 표준편차는 7.06으로 도출되었다. 이 통계결과를 기준으로, 평균에서 1/2표준편차 이상의 집단을 '높은 우울집단', 평균에서 1/2표준편차 미만의 집단을 '낮은 우울집단', 그 사이를 '중간 우울집단'으로 분류했다. 각 우울집단의 사례수와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간 차이는 <표 1>과 같다.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평균점수(표준편차)는 25.72점(7.33)으로, 낮은 우울집단의 평균점수는 15.27점(2.40), 중간 우울집단의 평균점수는 22.00점(1.84), 높은 우울집단의 평균점수는 31.70점(4.36)이었다.

<표 1>에 따르면,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모든 우울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낮은 우울집단이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보였으며,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은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 덜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보였다.

<표 1> 각 우울집단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M(SD)			F (2, 58)
	낮은 우울집단 (N=26)	중간 우울집단 (N=33)	높은 우울집단 (N=42)	
자기효능감	18.462(2.727)	15.550(3.300)	15.429(2.808)	5.193**
또래애착	41.769(5.805)	36.900(5.399)	36.250(7.896)	3.158*
부모자녀 의사소통	39.385(7.943)	35.100(5.210)	33.464(7.743)	3.148*

*p<.05, **p<.01

판별분석은 다변량분석의 기본 가정을 위반할 때 큰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우울집단의 사례수도 상이하므로, 모집단의 공분산행렬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Box's M 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각 우울집단의 모집단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이 증명되어 판별분석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예측변수들 상호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예측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423 이하로 나타나³⁾ 판별식에 세 예측변수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세 예측변수들은 Wilk's Lambda에 근거한 판별분석 방법에서 모든 변수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enter analysis를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혼가정 아동의 세 우울집단을 판별하기 위해 추출된 판별함수는 예측변수의 수 3개와 '집단수-1'의 2개 중의 최소치인 2개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개의 판별함수 중 첫 번째 판별함수만이 우울집단 판별에 유의했다. 고유치와 정준상관계수를 통해 예측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판별함수로 우울집단을 분류할 경우 총 변량의 97.8%를 설명할 수 있었다. Wilk's λ 와 χ^2 에 의해 첫 번째 판별함수로 구별된 집단간 이질을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 =.765, χ^2 =15.259, df=6, p<.05).

<표 2>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Function)	고유치 (Eigenvalue)	설명변량 (Percent of variance)	정준상관 계수 (Canonical corr.)	Wilk's λ	χ^2	df	유의도
1	.298	97.8	.479	.765	15.259	6	.018
2	.007	2.2	.081	.993	.379	2	.827

3)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은 상관계수가 .5이하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이영준, 1993). 판별식에 포함된 세 예측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판별함수에 의해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집단이 얼마나 잘 예측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와 집단판별중심치를 살펴보았다. <표 3>과 같이 비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유도된 판별공식은 $Y = -7.910 + .236X_1 + .067X_2 + .045X_3$ 이며, 이 공식에서 산출된 집단판별중심치는 낮은 우울집단이 1.016, 중간 우울집단이 -.190, 높은 우울집단이 -.336으로 나타났다. 위의 판별공식(Y)에 각 아동의 자기효능감(X_1), 또래애착(X_2), 부모자녀 의사소통(X_3)을 대입하여 얻은 점수(Y)가 세 집단의 집단판별중심치 중 어디에 가까우지에 따라 아동은 특정 우울집단으로 판별·예측될 수 있다. 실제로 이 판별함수에 의해 연구대상 101명의 이혼가정 아동을 각 우울집단으로 판별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즉, 실제 낮은 우울집단을 낮은 우울집단으로 올바르게 판별한 경우는 전체 26명 중 76.9%인 20명이고, 중간 우울집단을 중간 우울집단으로 판별한 경우는 33명 중 25.0%인 8명, 높은 우울집단을 높은 우울집단으로 판별한 경우는 42명 중 60.7%인 26명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예측변수들이 낮은 우울집단을 가장 잘 예측했으며, 다음으로 높은 우울집단을 잘 예측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각 집단을 올바르게 분류할 분류정확률(Hit Ratio)은 52.5%이었다. 이 결과가 어느 정도의 판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연치와 비율우연기준치⁴⁾로 검증하면, 판별분석 결과 각각 6.6%와 15.8% 가량 판별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첫 번째 판별함수의 비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및 집단판별중심치

	비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집단판별중심치
일반적 자기효능감(X_1)	.236	
또래애착(X_2)	.067	낮은 우울집단 1.016 중간 우울집단 -.190
부모자녀 의사소통(X_3)	.045	높은 우울집단 -.336
(상수)	-7.910	

4) 판별분석에서 가정된 모형이 어느 정도의 판별력을 가지는지 평가해보는 기준. 최대우연기준치는 어느 한 쪽으로 모두 분류할 때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확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 비율우연기준치는 각 집단의 비를 제공하여 더한 확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김영석, 2000). 각 식은 아래와 같다.

$$\text{최대우연기준치} = \frac{\text{최대빈도집단의표본수}}{\text{전체표본수}}$$

$$\text{비율우연기준치} = \sum_{i=1}^m \frac{\text{집단}i\text{의 빈도수}}{\text{전체표본수}}$$

<표 4> 이혼가정 아동의 세 가지 우울집단의 분류정확률

우울집단	사례수	예측집단		
		낮은 우울집단 N(%)	중간 우울집단 N(%)	높은 우울집단 N(%)
낮은 우울집단	26	20(76.9%)	4(15.4%)	2(7.7%)
중간 우울집단	33	11(35.0%)	8(25.0%)	14(40.0%)
높은 우울집단	42	7(17.9%)	9(21.4%)	26(60.7%)

분류정확률(Hit Ratio) = 52.5%

각 예측변수가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집단 판별에 기여한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계수 및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5>와 같이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세 예측변수 모두 판별함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도 높게 산출되었다.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집단 판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예측변수는 자기효능감이며, 다음으로 또래애착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순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우울을 느끼는 데에는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비해 또래 관계의 질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의 영향은 유의하나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들음을 시사한다.

<표 5> 첫 번째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 및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자기효능감	.773	.700
또래애착	.603	.453
부모자녀 의사소통	.589	.316

<표 5>의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성과 <표 3>의 우울집단의 집단판별중심치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판별중심치를 통해 첫 번째 판별함수로 구별된 각 우울집단간의 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낮은 우울집단과 높은 우울집단이 가장 거리가 멀고, 중간 우울집단은 낮은 우울집단과는 거리가 멀지만 높은 우울집단과는 거리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우울집단과 중간 및 높은 우울집단은 첫 번째 판별함수에 의해 잘 판별되는 반면, 중간 우울집단과 높은 우울집단은 판별이 덜됨을 말한다. 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감각이 높아지고, 친구들이 심리적 안전감의 기반으로 잘 작용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수록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수준은 낮은 반면,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낮을수록 중간 수준 이상의 우울이 나타난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낮게 지각하면 중간 수준 이상의 우울을 느낄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2.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통한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 판별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들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의해 어느 정도 판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했다.

판별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연구대상 이혼가정 아동 101명과 일반가정 아동을 포함한 전체 3,169명 아동의 불안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불안 점수의 평균은 14.50점, 표준편차는 5.02로 도출되었다. 이 통계결과를 기준으로, 평균에서 1/2표준편차 이상의 집단을 '높은 불안집단', 평균에서 1/2표준편차 미만의 집단을 '낮은 불안집단', 그 사이를 '중간 불안집단'으로 분류했다.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 평균점수(표준편차)는 16.20점(5.41)이었으며, 낮은 불안집단의 평균점수는 10.19점(2.06), 중간 불안집단의 평균점수는 16.21점(1.34), 높은 불안집단의 평균점수는 22.68점(3.33)이었다.

각 불안집단의 사례수와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간 차이는 <표 6>과 같다.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불안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낮은 불안집단이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덜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보였다. 또래애착은 불안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6> 각 불안집단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M(SD)			F (2, 58)
	낮은 불안집단 (N=26)	중간 불안집단 (N=43)	높은 불안집단 (N=32)	
자기효능감	18.231(2.976)	15.567(3.191)	15.500(2.706)	4.080*
또래애착	39.308(6.600)	37.767(7.055)	36.222(7.232)	.740
부모자녀 의사소통	38.462(7.310)	36.833(6.649)	30.333(6.117)	7.302**

*p<.05, **p<.01

모집단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Box's M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각 불안집단의 모집단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이

증명되어 판별분석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세 예측변수들은 Wilk's Lambda에 근거한 판별분석 방법에서 모든 변수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enter analysis를 통해 분석되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개의 판별함수 중 첫 번째의 판별함수만이 불안집단 판별에 유의했다. 고유치와 정준상관계수를 통해 예측변수들로 종속변수가 설명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판별함수로 불안집단을 분류할 경우 총 변량의 72.8%를 설명할 수 있었다. Wilk's λ와 x²에 의해 첫 번째 판별함수로 구별된 집단간 이질성을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Wilk's λ=.714, x²=19.219, df=6, p<.01).

<표 7> 판별함수의 유의도

함수 (Function)	고유치 (Eigenvalue)	설명변량 (Percent of variance)	정준상 관계수 (Canonical corr.)	Wilk's λ	x ²	df	유의도
1	.272	72.8	.462	.714	19.219	6	.004
2	.102	27.2	.304	.908	5.519	2	.063

구체적으로 첫 번째 판별함수에 의해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이 얼마나 잘 예측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비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와 집단판별중심치를 살펴보았다. <표 8>과 같이 비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유도된 판별공식은 Y = -5.988+.104X₁-.017X₂+.140X₃이며, 이 공식에서 산출된 집단판별중심치는 낮은 불안집단이 .641, 중간 불안집단이 .161, 높은 불안집단이 -.732로 나타났다. 위의 판별공식(Y)에 각 아동의 자기효능감(X₁), 또래애착(X₂), 부모자녀 의사소통(X₃)을 대입하여 얻은 점수(Y)가 세 집단 중의 집단판별중심치 중 어디에 가까운지에 따라 아동은 특정 불안집단으로 판별·예측될 수 있다. 실제로 이 판별함수에 의해 연구대상 61명의 이혼가정 아동을 각 불안집단으로 판별한 정도는 <표 9>와 같다. 즉, 실제 낮은 불안집단을 낮은 불안집단으로 올바르게 판별한 경우는 전체 26명 중 61.5%인 16명이고, 중간 불안집단을 중간 불안집단으로 판별한 경우는 43명 중 50.0%인 22명, 높은 불안집단을 높은 불안집단으로 판별한 경우는 32명 중 66.7%인 22명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예측변수들은 높은 불안집단을 가장 잘 예측했고, 다음으로 낮은 불안집단을 잘 예측했음을 알려준다. 전체적으로 각 집단을 올바르게 분류할 분류정확률(Hit Ratio)은 57.4%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어느 정도의 판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최대우연치와 비율우연기준치로 검증하면, 판별분석 결과 각각 6.6%와 20.0% 가량 판별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첫 번째 판별함수의 비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및 집단판별중심치

	비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집단판별중심치
일반적 자기효능감(X ₁)	.104	
또래애착(X ₂)	-.017	낮은 불안집단 .641 중간 불안집단 .161 높은 불안집단 -.732
부모자녀 의사소통(X ₃)	.140	
(상 수)	-5.988	

<표 9> 이혼가정 아동의 세 가지 불안집단의 분류정확률

불안집단	사 례 수	예측집단		
		낮은 불안집단 N(%)	중간 불안집단 N(%)	높은 불안집단 N(%)
낮은 불안집단	26	16(61.5%)	2(7.7%)	8(30.8%)
중간 불안집단	43	10(23.3%)	22(50.0%)	11(26.7%)
높은 불안집단	32	5(16.7%)	5(16.7%)	22(66.7%)

분류정확률(Hit Ratio) = 57.4%

각 예측변수가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 판별에 기여한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계수와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살펴보았다. <표 10>과 같이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이 판별함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도 높게 산출되었다. 즉,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 판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예측변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이 판별함수의 판별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불안을 느끼는 데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나 작고, 또래애착은 불안집단 판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10> 첫 번째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 및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판별함수와 각 예측변수간의 상관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자기효능감	.486	.313
또래애착	.300	-.119
부모자녀 의사소통	.947	.932

<표 10>의 예측변수의 상대적 중요성과 <표 8>의 불안집단의 집단판별중심치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판별중심치를 통해 첫 번째 판별함수에 의해 구분된 각 불안집단간 거리의 차이를 살펴보면, 낮은 불안집단과 높은 불안집단이 가장 거리가 멀었다. 중간 불안집단은 낮은 불안집단 및 높은 불안집단과 모두 판별되는 거리에 존재했지만, 높은 불안집단보다 낮은 불안집단과 더 가까웠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중간 이하의 불안을 보이는 경우에 비해 잘 판별됨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변수들에 의해 중간 이상의 우울집단과 낮은 우울집단이 판별된 연구문제1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자녀 사이에 의사 표현에 장애를 느끼고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안정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할수록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 수준은 높은 반면, 이 점수들이 높을수록 이혼가정 아동은 중간 이하의 불안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혼가정 학령기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요인인 또래애착, 가족관계 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준거로 하여 아동의 우울과 불안 수준을 판별하고 이들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모두 우울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낮은 우울집단이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보였으며,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은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 덜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보였다.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집단 판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예측변수는 자기효능감이며, 다음으로 또래애착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순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우울을 느끼는 데에는 개인 요인인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이론에서 설명하듯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에 따라 심리상태가 결정되고 우울의 원인이 지각된 혹은 실제적인 통제감의 상실에서 비롯되므로(오복자, 2000),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서지영, 2002; 주소희, 2004; Cowen et al., 1990)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자신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과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부모나 또래관계와 같은 관계적 측면보다는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긍정적 발달결과 간의 관계를 중재하여(Werner & Smith, 1992)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다(Seligman, 1989). 따라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인정은 이혼가정 아동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탄력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또래애착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의 영향은 유의하나 그 크기가 점차 줄어들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결과는 일반가정과 이혼가정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이은희 등, 1992; 임영식, 1997)의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의 애정과 거부적 태도는 의사소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다. 부모자녀 간의 폐쇄적이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생성하며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내면화될 때 아동의 우울을 심화시킬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위기적 사건을 경험한 아동에게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적응을 돕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부정적 상호작용은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또래애착이 아동의 우울 수준을 판별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 시기 아동에 대한 또래의 영향력을 시사한다. 또래에 대한 지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원으로서 또래의 영향력도 증가할 것이므로(Ainsworth, 1989) 또래애착은 아동의 우울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Armsden & Greenberg, 1987; Cowen et al., 1990; Kurdek & Berg, 1987; Werner & Smith, 1982). 부모 이혼 후 또래관계로부터의 지지는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여 우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동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Grych & Fincham, 1992).

둘째, 낮은 우울집단과 중간 및 높은 우울집단은 잘 판별되는 반면, 중간 우울집단과 높은 우울집단 간의 판별은 덜 되었다. 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아지고, 친구들이 심리적 안전감의 기반으로 잘 작용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수준은 낮은 반면,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낮아지면 중간 수준 이상의 우울이 나타난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낮게 지각하면 중간 수준 이상의 우울을 느낄 확률이 높음을 시사한다. 높은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긍정적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아동이 우울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요소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불안집단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낮은 불안집단이 자기효능감의 수준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덜 개방적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보였다. 또래애착은 불안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집단 판별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예측 변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으로 밝혀졌으며, 다음으로 자기효능

감이 판별함수의 판별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가정 아동이 불안을 느끼는 데에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긍정성 정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나 적고, 또래애착은 불안집단 판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불안 집단 판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불안은 가정 및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영교, 1995; 김지영, 1997; 전재순, 1998)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에게 부모의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보호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시켜줄 수 있으며(Sandler, 2001) 이에 기초가 되는 것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으로 표현되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아동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나 의미 있는 사회적 지지원의 하나인 또래관계보다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은 부모의 이혼을 통해 세상이 안전한 곳이며 부모가 돌보아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전감에 손상을 입고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은 부모의 애정과 돌봄을 확인하고 유기불안을 비롯한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지이론에서는 불안한 아동이 세상을 친숙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장소로 보며, 사건에 대해 더 부정적 해석으로 하고 부정적 사건에 대해 자신을 더 많이 비난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더 주목한다(Silverman & Ginsburg, 1995)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아동이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고 극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래애착이 불안 집단을 판별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울에 대한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아동의 불안에 대해 심리사회적 환경 중에서도 부모자녀관계 측면은 중요성을 갖지만 또래관계의 역할이 미미함을 시사한다. 또래관계의 여러 측면을 측정하는 다른 변수들을 사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은 또래관계보다는 부모와의 관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된다. 요약하면, 우울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에 의해, 그리고 불안은 부모자녀관계 요인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넷째, 이혼가정 아동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중간 이하의 불안을 보이는 경우에 비해 잘 판별되었다. 부모자녀 사이에 의사 표현에 장애를 느끼고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안정적인 감각을 가지지 못할수록 이혼가정 아동의 불안 수준은 높은 반면, 이 점수들이 높을수록 이혼가정 아동은 중간이하의 불안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모이혼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아동들의 긍정적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학령기는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학령전기나 학령기에 부모가 이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통계청, 2003) 부모이혼의 영향을 주로 학령기에 경험하게 된다. 부모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시간(5년 이상)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리행동상의 문제를 보인다는 결과(주소희, 1991, 2004)를 고려해볼 때 학령기에 부모이혼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춘기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운 발달과업과 더불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적응문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고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아동의 우울, 불안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이혼가정 아동의 우울 또는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를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은 아동이 부모의 이혼이라는 어렵고 도전적인 삶의 경험에 잘 적응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 있다.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이 우울과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북돋아줄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많은 지지체계 중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이혼가정 아동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김승경, 2004)임을 고려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함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이혼한 부모가 받는 생활 스트레스가 과중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태도를 취하고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부모에게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다(주소희, 2004)는 점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이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위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있어서 우울의 경우에는 또래관계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며, 불안의 경우는 부모자녀관계 측면에 더욱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의 주된 책임을 맡은 부모에 대한 지각만을 연구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나, 자녀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변수를 알아보는 연구목적상 주된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이혼가정의 주된 양육책임자의 성별에 따라 또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지각도 함께 연구에 포함시킬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후연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인 요인과, 아동의 중요한 심리사회적 환경인 가족 관계 요인, 또래관계 요인이 아동의 우울과 불안 수준을 판별하는 준거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접수일 : 2004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11월 30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1월 05일

【참 고 문 헌】

- 권영미(2000).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숙(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태(1988). 발달심리학. 서울: 범우사.
- 김승경(2004).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간의 경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교(1995). 부모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석(2002). 사회조사방법론: SPSS WIN 통계분석. 서울: 나남출판.
- 김옥(2000).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예측.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이옥경(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35-82.
- 김은정·오경자(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 증상. 소아청소년정신의학, 3(1), 117-128.
- 김지영(1997). 초등학교 아동의 불안수준과 대처방식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동승자(2000). 이혼가정 아동의 통제소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 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주·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박종배(1987). 이혼한 부모의 아동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연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복자(2000). 자기효능감과 우울. 류머티스건강학회지, 7(1), 189-194.
- 오은순(1998).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미·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영준(1993). 다변량분석. 서울: 도서출판 석정.
- 이은희·최태산·서미정(2000). 남녀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 학교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혜승·이순형(2003).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내면적 증세에 미치는 영향. 이혼가정과 양부모 가정의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0(1), 11-29.
- 임영식(1997). 우울증이 가져오는 청소년기의 행위 양태. *오늘의 청소년*, 117, 8-13.
-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세순(1998).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아동의 불안, 자아개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정현숙(1992).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주소희(1991). 이혼가정자녀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소희(2004).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은선(2002). 학령기 정상가정자녀와 이혼가정자녀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적응정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남(1995). 아동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동적 가족화에 의한 우울 판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0-2003). <http://www.nso.go.kr/cgi-bin/sws-999.cgi>.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Y.: Prentice-Hall.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Olson, D. H., McCubbin, H. I., Larsen, A., Muzen, M. & Wilson, M.(Eds.).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enedek, R. S. & Benedek, E. P.(1979). Children of divorce: Can we meet their needs? *Journal of Social Issues*, 35(4), 155-169.
- Bruch, M. A. & Heimberg, R. G.(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 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8, 155-168.
- Chandler, R.(1985). Stepparent-stepchild relationships in stepmother and stepfather families: A multimethod study. *Family Relations*, 33, 465-473.
- Cowen, E. L., Wyman, P. A., Work, W. C. & Parker, G. R. (1990). The rochester child resilience project: Overview and summary of first year finding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193-212.
- Emery, R. E.(1991).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 Grych, J. H. & Fincham, F. D.(1992). Intervention for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etherington, E. 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233-288), Hillsdale, NJ: Erlbaum.
- Jacobson, S., Fasman, J. & Dimascio, A.(1975). Deprivation in the childhood of depressed women.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0, 5-14.
- Jaffe, L. M.(1997). *Understanding parenting*. MA: Allyn & Bacon.
- Kandel, D. & Davis, M.(1986). Adult sequences of adolescent sympto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255-262.
- Kovacs, M.(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46, 305-315.
- Kuder, G. F. & Richardson, M. W.(1937). The theory of the estimation of test reliability. *Psychometrika*, 2, 151-160.
- Kurdek, L. A. & Berg, B.(1987). Children's beliefs about parental divorce scal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5), 712-718.
- Masten, A. S. & Coatworth, J. D.(198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 Parker, J. & Asher, S. R.(1993).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 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behavior problem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eynolds, C. R. & Richmond, B. O.(1978). What I think and

-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 271-280.
- Sandler, I.(2001). Quality and ecology of adversity as common mechanism of risk and resili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19-61.
- Schwarzer, R.(1997). The assessment of optimistic self-beliefs: Comparison of the Chinese, Indonesian, Japanese, and Korean versions of General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a*, 40(1), 1-13.
- Seligman, M. E. P.(1989). *Why there so much depression today?* In the G. Stanley Hall Lecture Seri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lverman, W. K. & Ginsburg, G.(1995). Specific phobias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In J. March(Ed.),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Y.: Guilford.
- Smilansky, S.(1992). 오은순 역(2002). *이혼가정아동*. 서울: 학지사.
- Turner, S., Norman, E. & Zunz, S.(1995). Enhancing resiliency in girls and boys: A case for gender specific adolescent prevention programming.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6(1), 25-38.
- Wallerstein, J. S. & Kelly, J. 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Y.: Basic Books.
- Werner, E. E. & Smith, R. S.(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Y. & Sandler, I. N.(2000).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87-95.
- Wolchik, S. A., Sandler, I. & Doyler, C. (2002). Fear abandonment as mediator of the relation between divorce stressor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401-419.

<부록> 예측변수들 간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또래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1.000		
또래애착	.200	1.000	
부모자녀 의사소통	.253	.423	1.000